

단2:31-35

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단2:31-35

33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단2:31-35

35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인류역사의 주제 및 내용

아담 - 셋 - 에노스

에녹 - 므두셀라

노아 - 셈

아브라함 - 이삭 - 야곱

모세 -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 솔로몬

여호사밧 - 히스기야 - 요시아

엘리아 - 엘리사 - 이사야 - 예레미야 - 다니엘 - 에스겔

학개 - 스가랴 - 말라기

우리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창1:26-28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